

# 서울의 고령자 주요통계

## (e-서울통계 74호)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 서울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2005년)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노인의 날(10.2)에 맞추어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잡 정리 하였으며, 노인복지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본문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인구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중심으로 고령화 추이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및 가치관 등을 정리하여 2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1. 『요 약』
  2. 『고령자 주요통계』
- 주로 활용된 자료는 서울시 '인구통계·서울서베이' 및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 이외에 통계청 '혼인통계·인구주택총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자료와 각종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음.
  - 활용된 자료는 가장 최근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장래인구추계 자료는 2012년에 작성된 것을 활용하였으므로 2007년도에 추계 발표된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 시계열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12년(2000~2012년) 추이 및 향후 2040년까지의 전망 등을 살펴보았음.
  -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상이하며, 본문에서는 주로 65세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원통계의 작성특성에 따라 연령범위가 일부 다름.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조사자료는 조사대상, 표본규모 및 설계 방법 등을 달리하는 타기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 필요함.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문에서 주로 활용된 자료설명

### ○ (등록인구통계) 서울시

- 작성목적 : 서울시 인구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를 파악하여 각 지방행정 기관의 제반 행정사항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방법 : 주민등록인구(내국인)와 등록외국인을 포함시켜 서울 총인구 작성함.
- 기초자료 : 주민등록인구(내국인)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 자료, 등록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FINE)』 자료
- 집계방법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발표 시 내국인과 등록외국인이 포함되었으며, 주민등록법 개정('09.4.1)으로 종전의 무단전출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0년말 기준부터 거주 불명자를 주민등록인구에 포함하여 집계함
- 유의사항 : 인구관련 통계는 추계인구, 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가 있고, 통계의 포괄범위,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이용에 유의바람.
  - ▶ 추계인구(2012년 장래인구추계) : 국가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장래인구(매년 7.1기준, 2010~2040년 인구 추계), 최근의 출생, 사망, 인구이동 추이를 기초로 장래의 인구변화를 전망함(매년 7월 1일 기준)
  - ▶ 총조사인구 : 현재 경제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구(0, 5년 11월 1일 기준)
  - ▶ 주민등록인구 : 행정수요 파악 등 대민업무수행을 위한 주민등록상의 인구(분기별, 매년 12월 31일 기준) 특히, 유학 및 해외취업 등에 의한 해외 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음.

### ○ (시도별 장래추계인구) 통계청

- 작성목적 : 인구변동(출생, 사망, 이동)의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시도별 과거인구를 확정하고, 중장기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국가 지역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책 및 인구관련 각종 지표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작성방법 : 코호트요인법 (Cohort Component Method)
  - ▶ 코호트요인법이란 어떤 특정연도 특정시도의 성 및 연령별 기준인구에 시도별 인구변동 요인인 출생, 사망, 이동에 대한 장래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방법
- 작성대상기간/시점 : 2010~2040년(30년간 : 매년 7월1일 기준), e는 추정치를 의미함.

### ○ (2012 서울서베이) 서울시

- 조사목적 : 서울시정 및 시민생활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 조사대상 2만 표본 가구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49,758명 조사 이중, 가구주 연령 65세이상 가구는 2,260 가구
- 조사기간 : 2012. 10. 1. ~ 10. 31.(한달간)

### ○ (시도별 장래가구추계-2012) 통계청

- 작성목적 : 가구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한 정보는 각종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유용,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족 분화 및 해체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구의 규모나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어, 이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장래가구추계가 필요
- 활용자료 : ① 기준가구 작성 장래가구추계 및 가구구성비 추정 : 1990~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② 장래 가구추계 대상인구 추계 : 2011 장래인구추계(2010~2060)  
③ 장래 혼인상태별 인구추계 : 인구동태자료 및 생명표(1990~2010)
- 작성대상기간/시점 : 2010~2035년(25년간 : 매년 7월1일 기준) , 2002년 최초작성

# 목 차

I. 요약 .....	1
II. 고령자 주요통계 .....	2
1.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	2
2. 고령화 추이 .....	3
가. 사회적부담 증가할 전망	
나. 노동력 고령화 될 전망	
3. 고령인구 성비 .....	6
4. 고령화 원인 .....	8
5. 65세이상 취업자 .....	9
6. 고령 가구주 .....	10
[분석 : 65세이상 가구 중 1인가구와 2인이상 가구의 생활실태 및 견해차]	
7. 황혼 결혼 및 이혼 .....	14
8. 사망원인 .....	15
9. 노인 진료비 .....	16
10. 노인복지 생활시설 현황 .....	17
11. 노인복지에 대한 견해 .....	18
12. 고민 및 받고싶은 복지서비스(60세이상) .....	19
13. 노후 생활(65세이상) .....	20
14.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65세이상) .....	21

## I . 요약

### ■ (고령화 추이)

- 65세이상 인구 지난 12년 새 2배 증가(2000년 56만명 → 2012년 111만1천명), 2040년<sup>e</sup> 299만4천명 추정
- 0~14세 인구 12년 새 30.2% 감소( 2000년 192만8천명 → 2012년 134만7천명), 2040년<sup>e</sup> 100만9천명
- 2000년 이후 15~64세 인구는 2010년(812만3천) 정점 찍고 감소, 2012년 798만5천명, 2040년<sup>e</sup> 592만2천명
- 서울 고령화 속도(고령화~초고령사회) 22년 소요, 전국(26년)보다 빨라질 전망
  - ※ 서울 : 2005년(7.1%) 고령화사회 진입→2020년(14.6%) 고령사회→2027년(20.4%)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 전국 : 2000년(7.2%) 고령화사회 진입→2017년(14.0%) 고령사회→2026년(20.8%)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65세이상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수 : 14.1명('00년) → 7.2명('12년) → 2.0명(40년<sup>e</sup>)
- 2000년 이후 핵심생산인구(25~49세)는 2007년(477만6천명) 정점 찍고 감소세, 2040년 295만2천명까지 감소될 전망  
→ 핵심노동인력 감소 및 노동력 자체도 고령화 될 전망
- 고령화 주원인 : 평균수명 증가(2040년<sup>e</sup> 남성 85.2세, 여성 89.8세) 및 저출산

### ■ (65세이상 취업자, 고령 가구주, 혼인 및 이혼, 사망원인)

- 65세이상 취업자 지난 12년 새 2.2배 증가( 2000년 11만8천명 → 2012년 25만8천명)
- 65세이상 가구주 12년 새 2.2배 증가(2000년 26만2천→2012년<sup>e</sup> 57만6천가구), 2035년<sup>e</sup> 157만5천가구  
→ 이중 부부만 사는 가구와 1인가구는 각각 2.4배 증가,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2.1배 증가함.
- 전체 가구 중 65세이상 가구주 비중 꾸준히 증가(2000년 8.5%→2012년<sup>e</sup> 16.3%), 2035년<sup>e</sup> 38.3%
- 2012년 65세이상 가구 중 자녀없이 부부만 살거나 나홀로 사는 가구 비중 56.2%
- 65세이상 결혼(1992년→2012년) : 남성 3.5배↑(158건→547건), 여성 7.1배↑(30건→213건)
- 65세이상 이혼(1992년→2012년) : 남성 9.7배↑(119건→1,156건), 여성 16.7배↑(30건→500건)
- 사망원인 임(1위),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폐렴(5위), 만성하기도질환, 알츠하이머병(7위), 자살(8위) 순  
→ 이중, 10년 전(2002년) 대비 폐렴, 알츠하이머병, 자살 사망률은 증가, 나머지 사망률은 감소

### ■ (의식 및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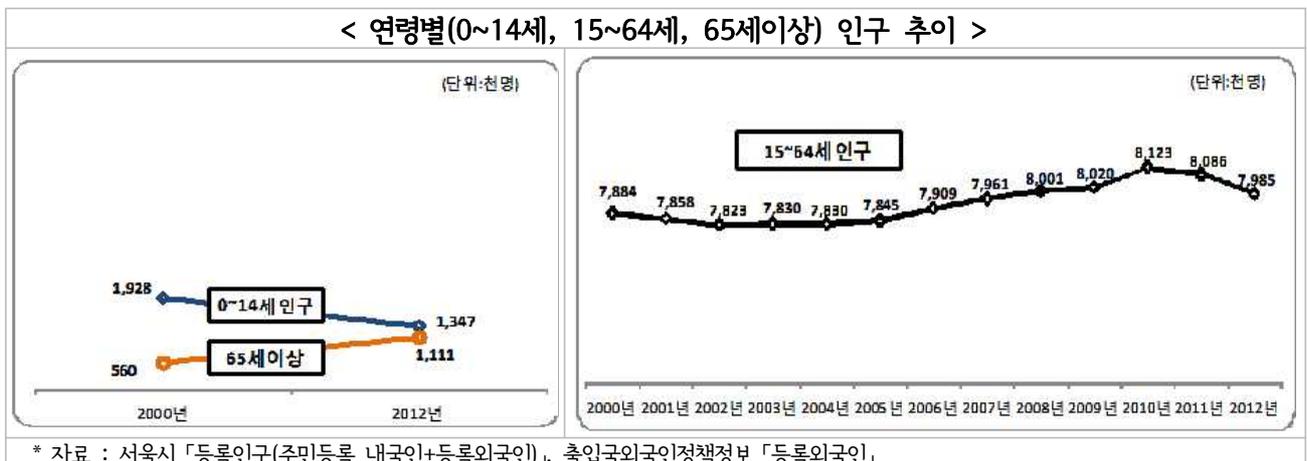
- 만15세이상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책임(54.0%), 가족전적책임(28.7%)
- 만1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세금 부담의향 있음 : 26.1%(‘07년)→36.3%(‘12년)
- 60세이상 서울시민 고민 건강(44.2%)>노후생활(19.8%)>경제문제(18.0%)  
→ 가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건강검진(34.1%)>간병(24.0%)>가사서비스(14.2%)
- 65세이상 노후 준비율 : 35.0%(‘07년)→47.1%(‘11년), 노후준비방법 보험(47.2%)>은행저축(45.0%) 순
- 65세이상 희망하는 동거형태 : 자녀들과 가까운 독립된 공간 49.3%, 노인전용공간 27.3%
- 65세이상 중 721%는 자년년동안 참여 모임이 하나이상 있다고 응답, 참여 모임 중 친목회/친목계 최다
- 65세이상 주말이나 휴일 실제 주 여가활동 1위 TV시청(57.3%), 희망 여가활동은 여행(28.3%)이 1위

## II. 고령자 주요통계

### 1.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2000년→2012년)

- ▶ 65세이상인구 12년 새 2배 증가 : 2000년 56만명 → 2012년 111만1천명  
 → 0~14세 인구 12년 새 30.2% ↓ : 2000년 192만8천명 → 2012년 134만7천명  
 → 15~64세 인구는 2010년 정점 찍고, 2년 연속 감소
- ▶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 0~14세 18.6% → 12.9%, 65세이상 5.4% → 10.6%

- 서울의 인구구조가 유소년 인구는 줄고, 고령층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서울시 65세이상 인구는 2000년 56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111만1천명으로 12년 새 2배 증가함.
  - 비중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에서 2012년 10.6%로 증가하였음.
- 고령인구(65세이상)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유소년(0~14세) 및 청장년인구(15~64세)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만0~14세 유소년 인구는 2000년 192만8천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134만7천명으로 12년 새 30.2%(58만2천명) 감소하였으며,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6%에서 2012년 12.9%로 감소함.
  - 또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만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788만4천명(총인구 중 76.0%)에서 2010년 812만3천명으로 정점을 이룬 이후 2011년 808만6천명, 2012년 798만5천명(총인구 중 76.5%)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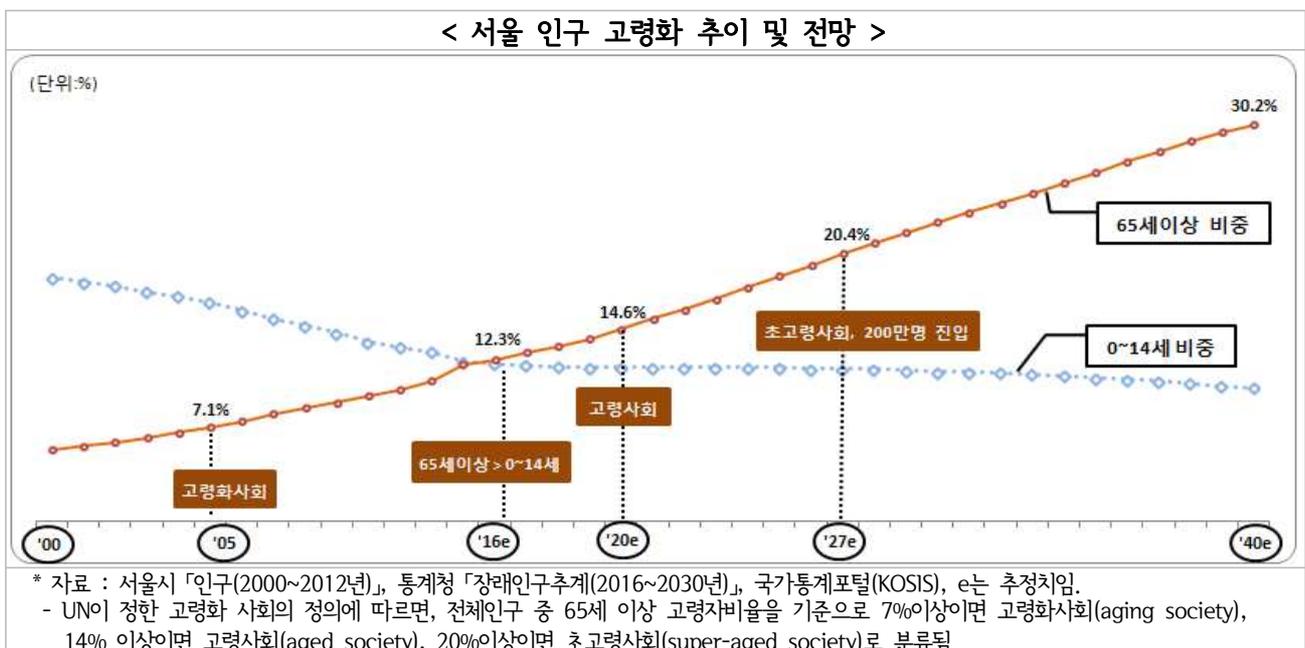


## 2. 고령화 추이

- ▶ 2005년 7.1% 고령화 사회 진입 2020년 14.6% 고령사회 진입 2027년 초고령사회 20.4% 진입 전망  
→ 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까지 22년 소요, 전국(26년)보다 빠른 전망
- ▶ 2016년<sup>e</sup>에는 65세이상 인구가 0~14세인구 추월할 전망, 2027년<sup>e</sup> 65세이상 200만명 넘어

- 출생아 수 감소(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65세이상 인구 및 65세이상 인구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통계에 따르면, 2005년 65세이상 인구가 73만6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7.1%를 차지 하면서 서울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음.
  - 장래인구추계(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추세라면 2016년<sup>e</sup>에는 노인인구(123만6천명)가 유소년 인구(120만1천명)보다 많아지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sup>e</sup>에는 65세이상 인구비율이 전체인구 중 14.6%(148만1천명)로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7년후인 2027년<sup>e</sup>에는 65세이상인구 비율이 20.4%(208만 5천명)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서울의 고령화는 전국(2000년 진입)보다 늦게 시작되었지만, 불과 22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고령화 속도는 전국보다 빠른 것으로 전망됨.

※ 전국 고령화 속도 :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6년 소요  
고령화사회(2000년 7.2%) → 고령사회(2017년<sup>e</sup> 14.0%) → 초고령사회(2026년<sup>e</sup> 20.8%)



### 가. 사회적부담 증가할 전망

- ▶ 65세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 56만명(00년) → 111만1천명(12년), 299만4천명(40년<sup>e</sup>)  
→ 15~64세인구 2010년 800만명대에서 2040년<sup>e</sup>(592만2천명) 600만명 아래로 감소 전망
- ▶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 급격히 증가할 전망  
→ 노인1명을 부양할 생산인구 감소 : 14.1명(00년) → 7.2명(12년) → 2.0명(40년<sup>e</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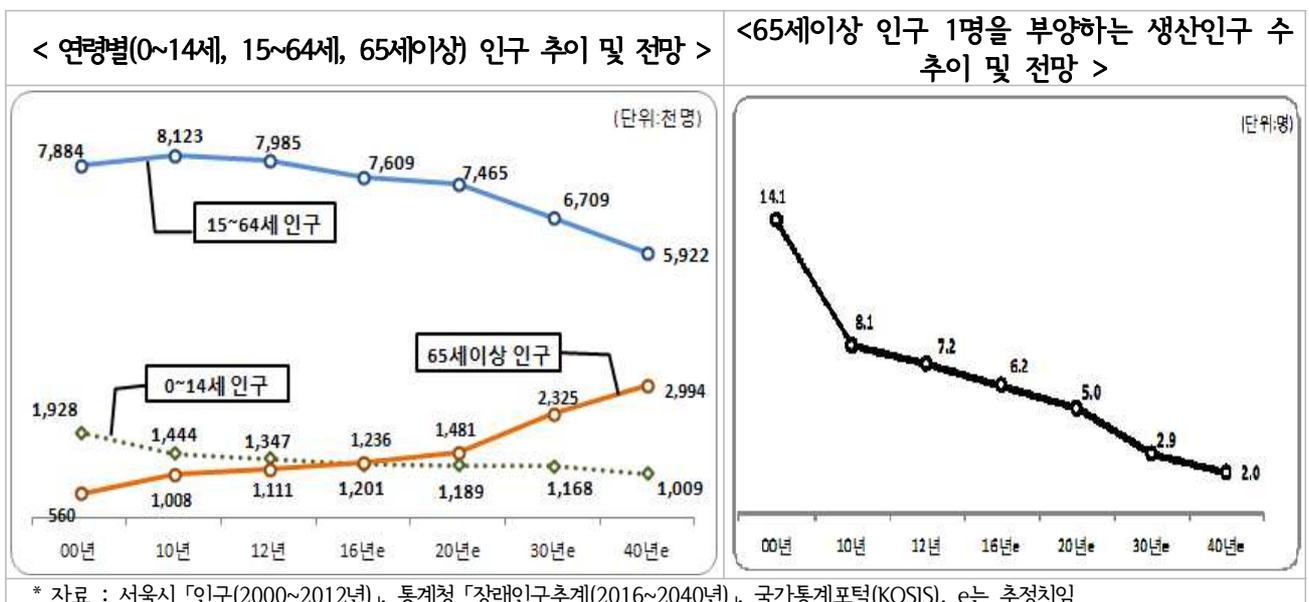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더불어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 감소로 노동력 자체를 고령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이후 만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보면, 2010년 812만3천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 798만5천명으로 줄었으며, 2040년<sup>e</sup>에는 592만2천명까지 줄어들 전망인 반면, 65세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111만1천명에서 2040년<sup>e</sup>에는 299만4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전체 인구에서 각 연령별 인구 비중으로 보면, 2012년 0~14세(12.9%), 15~64세(76.5%), 65세 이상(10.6%) → 2040년<sup>e</sup> 0~14세(10.2%), 15~64세(59.7%), 65세이상(30.2%)으로 바뀔 전망이다.

□ 이처럼,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이상 노년인구는 증가하여 생산인구의 노인 인구 부양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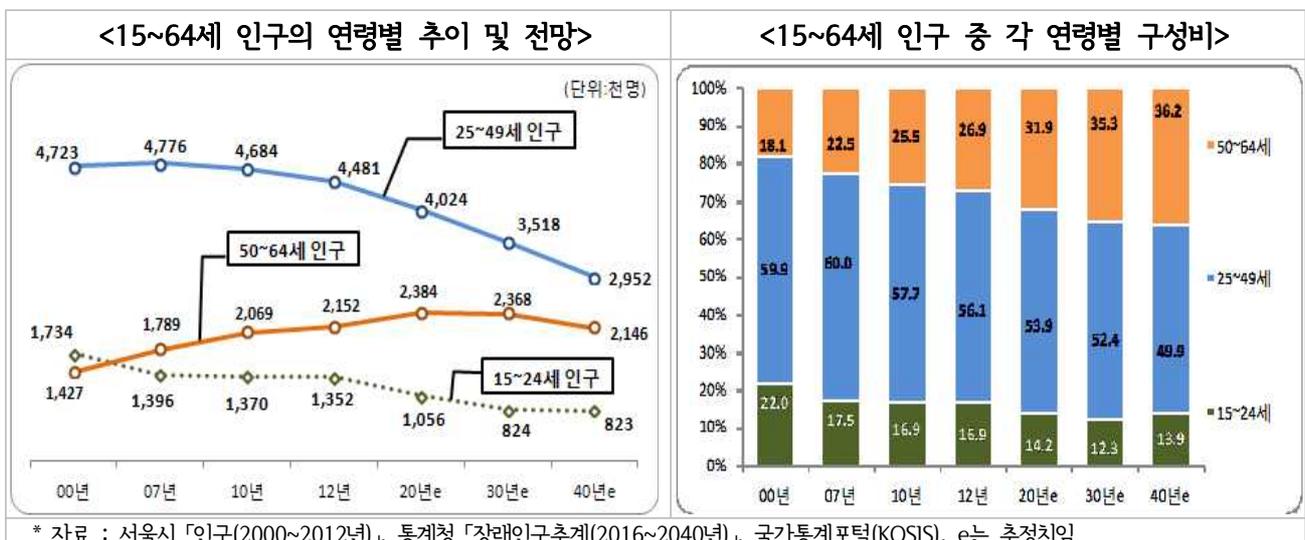
○ 20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14.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었지만, 2012년에는 청장년 7.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40년<sup>e</sup>에는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나. 노동력 고령화될 전망

- ▶ **핵심생산인구(25~49세) 2007년 이후 감소 시작, 2040년엔 300만명도 채 안될 전망**  
 : 2007년 477만6천명 → 2012년 448만1천명 → 2040년<sup>e</sup> 295만2천명
- ▶ **생산인구내에서 연령 구조 변화(2007년→2040년<sup>e</sup>), 노동인력 고령화**  
 : 17.5%(15~24세), 60.0%(25~49세), 22.5%(50~64세) → 13.9%(15~24세), 49.9%(25~49세), 36.2%(50~64세)

- 고령화 사회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핵심노동인력이 감소하고, 노동력 자체를 고령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이후 서울인구에 따르면,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정점을 찍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는 이보다 앞선 2007년 이후 이미 감소하기 시작함. 이런 추세로 보면, 향후에도 핵심 노동력 규모의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25~49세 인구는 2007년 477만6천명에서 2012년 448만1천명으로 줄었으며,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40년<sup>e</sup>에는 295만2천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 또한, 생산가능인구내에서도 젊은층인 15~24세 및 노동력의 주축인 25~49세 비중은 줄고, 50~64세 비중은 늘어날 전망으로 노동력 자체가 고령화될 전망이다.
  - 만15~64세인구 중 25~49세 인구 비중은 2007년 60.0%에서 2040년<sup>e</sup> 49.9%까지 줄어들고, 15~24세 인구 비중은 2007년 17.5%에서 2040년<sup>e</sup> 13.9%로 감소할 전망이며,
  - 2007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중 22.5%를 차지하고 있는 50~64세 고령자의 비중이 2040년<sup>e</sup>이 되면 36.2%로 높아질 전망이다.



### 3. 고령인구 성비

- ▶ 65세이상 성비(여자 1백명당 남자 수) : 2012년 77.3명 →2040년<sup>e</sup> 82.2명  
: 고령인구 성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
- ▶ 85세이상 초고령인구 2012년 7만9천명→2040년<sup>e</sup> 35만4천명으로 증가할 전망

- 2012년 현재 65세이상 고령자의 성비(여자 1백명당 남자 수)는 77.3명으로 2040년<sup>e</sup>에는 82.2명으로 높아질 전망이며, 고령인구의 성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함.
- 2012년 65세~74세의 성비는 여자 1백명당 남자 90.2명, 75~84세는 63.0명, 85세이상은 36.9명임.
- 2040년<sup>e</sup>에는 65세~74세의 성비가 89.7명, 75~84세는 81.1명, 85세이상은 58.0명이 될 전망이다.
- 65세이상 인구 내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85세이상 장수하는 초고령 인구는 2012년 7만9천명에서 2040년<sup>e</sup> 35만4천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65세이상 인구 중 65~74세 인구 비중은 2012년 65.9%에서 2040년<sup>e</sup> 50.8%로 감소 전망
- 65세이상 인구 중 75~84세 인구 비중은 2012년 27.0%에서 2040년<sup>e</sup> 37.3%로 증가 전망
- 85세 이상 초고령인구가 65세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7.1%에서 2040년<sup>e</sup> 11.8%로 증가할 전망

< 65세이상의 성별 및 연령별 인구 추이 및 전망 >

(단위:천명, %, 명)

연도별 구분	65세이상 인구 중 성별 및 연령별 구분												성비 (여성 100명당 남성 수)				
	계				남성				여성				65세 이상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65세 이상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65세 이상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65세 이상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인구 수 (천명)	2012년	1,111	732	300	79	484	347	116	21	627	385	184	58	77.3	90.2	63.0	36.9
	2020년 <sup>e</sup>	1,481	916	444	122	653	429	189	35	828	487	255	86	78.9	88.1	74.1	41.2
	2030년 <sup>e</sup>	2,325	1,438	670	217	1,043	678	293	73	1,282	760	378	144	81.4	89.2	77.5	50.6
	2040년 <sup>e</sup>	2,994	1,522	1,117	354	1,350	720	501	130	1,643	802	617	224	82.2	89.7	81.1	58.0
구성비 (%)	2012년	100.0	65.9	27.0	7.1	100.0	71.7	23.9	4.4	100.0	61.4	29.4	9.2				
	2020년 <sup>e</sup>	100.0	61.8	30.0	8.2	100.0	65.6	28.9	5.4	100.0	58.8	30.8	10.4				
	2030년 <sup>e</sup>	100.0	61.8	28.8	9.3	100.0	65.0	28.0	7.0	100.0	59.3	29.5	11.2				
	2040년 <sup>e</sup>	100.0	50.8	37.3	11.8	100.0	53.3	37.1	9.6	100.0	48.8	37.5	13.6				

\* 자료 : 서울시 「인구(2012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40년)」, 국가통계포털(KOSIS), e는 추정치임.

- 성비 : 여성인구 1백명당 남성 인구 수 = 남성 인구수 / 여성 인구수 × 100

〈연령별 인구, 구성비, 부양비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명, %, 명)

년도별 추이	총인구	연령별 인구			연령별 구성비			부양비		
		0~14세	15~64세	65세이상	0~14세	15~64세	65세이상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1백명당)	노년 부양비(생산가능인구1백명당)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백명당)
		2000년	10,373	1,928	7,884	560	18.6	76.0	5.4	24.5
2001년	10,331	1,884	7,858	589	18.2	76.1	5.7	24.0	7.5	31.3
2002년	10,281	1,842	7,823	616	17.9	76.1	6.0	23.5	7.9	33.4
2003년	10,277	1,797	7,830	650	17.5	76.2	6.3	23.0	8.3	36.2
2004년	10,288	1,765	7,830	693	17.2	76.1	6.7	22.5	8.9	39.3
2005년	10,297	1,716	7,845	736	16.7	76.2	7.1	21.9	9.4	42.9
2006년	10,356	1,660	7,909	787	16.0	76.4	7.6	21.0	9.9	47.4
2007년	10,422	1,608	7,961	852	15.4	76.4	8.2	20.2	10.7	53.0
2008년	10,456	1,556	8,001	899	14.9	76.5	8.6	19.5	11.2	57.7
2009년	10,464	1,501	8,020	943	14.3	76.6	9.0	18.7	11.8	62.8
2010년	10,575	1,444	8,123	1,008	13.7	76.8	9.5	17.8	12.4	69.8
2011년	10,529	1,393	8,086	1,049	13.2	76.8	10.0	17.2	13.0	75.3
2012년	10,442	1,347	7,985	1,111	12.9	76.5	10.6	16.9	13.9	82.5
2013.6월말	10,423	1,323	7,958	1,142	12.7	76.4	11.0	16.6	14.4	86.4
2015년 <sup>e</sup>	10,026	1,222	7,615	1,188	12.2	76.0	11.9	16.0	15.6	97.2
2016년 <sup>e</sup>	10,046	1,201	7,609	1,236	12.0	75.7	12.3	15.8	16.2	102.9
2017년 <sup>e</sup>	10,068	1,193	7,588	1,287	11.9	75.4	12.8	15.7	17.0	107.8
2018년 <sup>e</sup>	10,090	1,190	7,556	1,344	11.8	74.9	13.3	15.8	17.8	112.9
2019년 <sup>e</sup>	10,113	1,186	7,518	1,408	11.7	74.3	13.9	15.8	18.7	118.7
2020년 <sup>e</sup>	10,135	1,189	7,465	1,481	11.7	73.7	14.6	15.9	19.8	124.6
2021년 <sup>e</sup>	10,156	1,192	7,403	1,560	11.7	72.9	15.4	16.1	21.1	130.8
2022년 <sup>e</sup>	10,175	1,193	7,340	1,642	11.7	72.1	16.1	16.2	22.4	137.7
2023년 <sup>e</sup>	10,191	1,188	7,276	1,727	11.7	71.4	16.9	16.3	23.7	145.4
2024년 <sup>e</sup>	10,204	1,190	7,199	1,815	11.7	70.5	17.8	16.5	25.2	152.6
2025년 <sup>e</sup>	10,214	1,194	7,114	1,906	11.7	69.6	18.7	16.8	26.8	159.6
2026년 <sup>e</sup>	10,220	1,188	7,035	1,997	11.6	68.8	19.5	16.9	28.4	168.0
2027년 <sup>e</sup>	10,222	1,187	6,950	2,085	11.6	68.0	20.4	17.1	30.0	175.7
2028년 <sup>e</sup>	10,219	1,182	6,868	2,169	11.6	67.2	21.2	17.2	31.6	183.6
2029년 <sup>e</sup>	10,212	1,175	6,788	2,249	11.5	66.5	22.0	17.3	33.1	191.4
2030년 <sup>e</sup>	10,202	1,168	6,709	2,325	11.4	65.8	22.8	17.4	34.7	199.1
2031년 <sup>e</sup>	10,188	1,159	6,635	2,395	11.4	65.1	23.5	17.5	36.1	206.6
2032년 <sup>e</sup>	10,172	1,148	6,562	2,462	11.3	64.5	24.2	17.5	37.5	214.5
2033년 <sup>e</sup>	10,151	1,135	6,485	2,531	11.2	63.9	24.9	17.5	39.0	222.9
2034년 <sup>e</sup>	10,128	1,121	6,401	2,605	11.1	63.2	25.7	17.5	40.7	232.3
2035년 <sup>e</sup>	10,102	1,106	6,315	2,681	10.9	62.5	26.5	17.5	42.5	242.5
2036년 <sup>e</sup>	10,072	1,089	6,229	2,755	10.8	61.8	27.4	17.5	44.2	253.1
2037년 <sup>e</sup>	10,040	1,070	6,144	2,826	10.7	61.2	28.1	17.4	46.0	264.1
2038년 <sup>e</sup>	10,004	1,051	6,063	2,890	10.5	60.6	28.9	17.3	47.7	275.1
2039년 <sup>e</sup>	9,966	1,030	5,989	2,946	10.3	60.1	29.6	17.2	49.2	286.0
2040년 <sup>e</sup>	9,924	1,009	5,922	2,994	10.2	59.7	30.2	17.0	50.6	296.7

\* 자료 : 서울시 「인구(2000~2012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40년)」, 국가통계포털(KOSIS), e는 추정치임.  
 - 유소년 부양비 : (0~14세 인구/15~64세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65세이상 인구/15~64세인구) × 100  
 - 노령화 지수 : (65세이상 인구)/0~14세인구 × 100

## 4. 고령화 원인 : 기대수명과 출산율

### ▶ 고령화의 주원인 : 기대수명 연장 및 출산 감소

- : 기대수명(2000년→2011년→2040년<sup>\*)</sup> : 남성 75.8세→79.3세→85.2세, 여성 81.7세→85.6세→89.8세
- : 출생아 수 감소, 1982년 19만8천명 → 1992년 18만3천명 → 2012년 9만4천명
- : 서울은 현재 초 저출산도시임, 합계출산율 1982년 2.05명→2012년 1.06명

□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 감소가 인구 고령화의 주 원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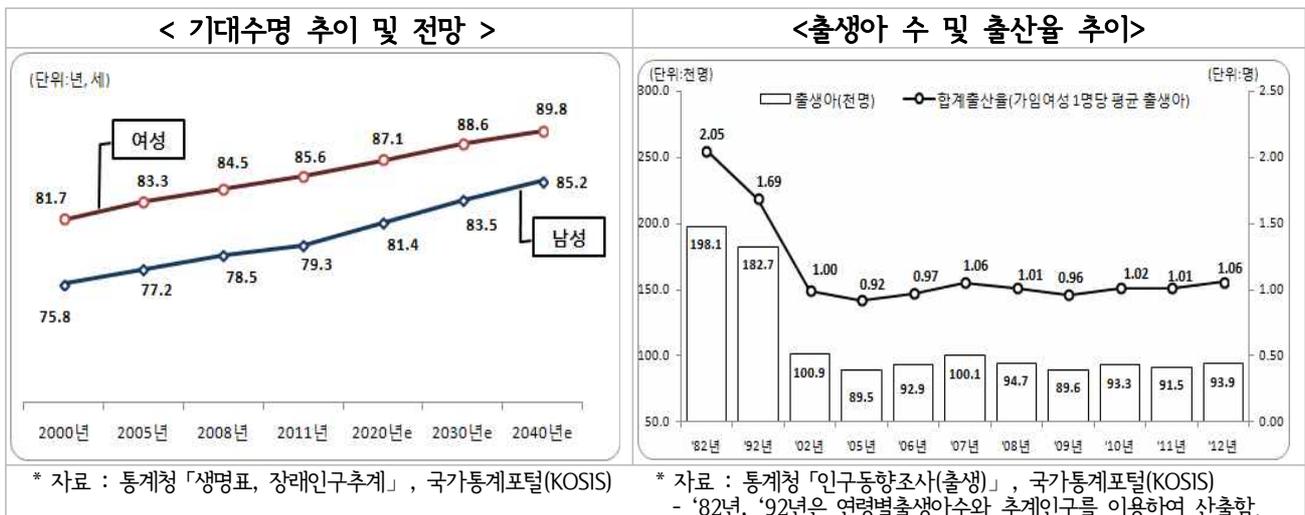
-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의료기술 및 자원의 향상 등으로 질병 예방 및 질병 조기발견이 가능해져 평균수명이 연장
- 경기불황 및 교육수준 향상으로 청년층의 취업이 지연(경제적 불안정)되거나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주거문제, 양육 및 교육비의 부담, 가치관 변화 등으로 결혼 및 출산을 연기(포기)하고 있음.

□ 고령자의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음.

- 65세이상 서울 노인의 사망률은 2000년 65세이상 인구 10만명 당 4,073명에서 2012년 2,781건으로 약 32% 감소함.
- 기대수명은 2000년 남성 75.8세, 여성 81.7세에서 2011년 각각 79.3세와 85.6세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40년<sup>e</sup>에는 여성 89.8세, 남성 85.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됨.

※ 기대수명은 해당연도에 태어난 신생아의 평균 생존연수로서 평균수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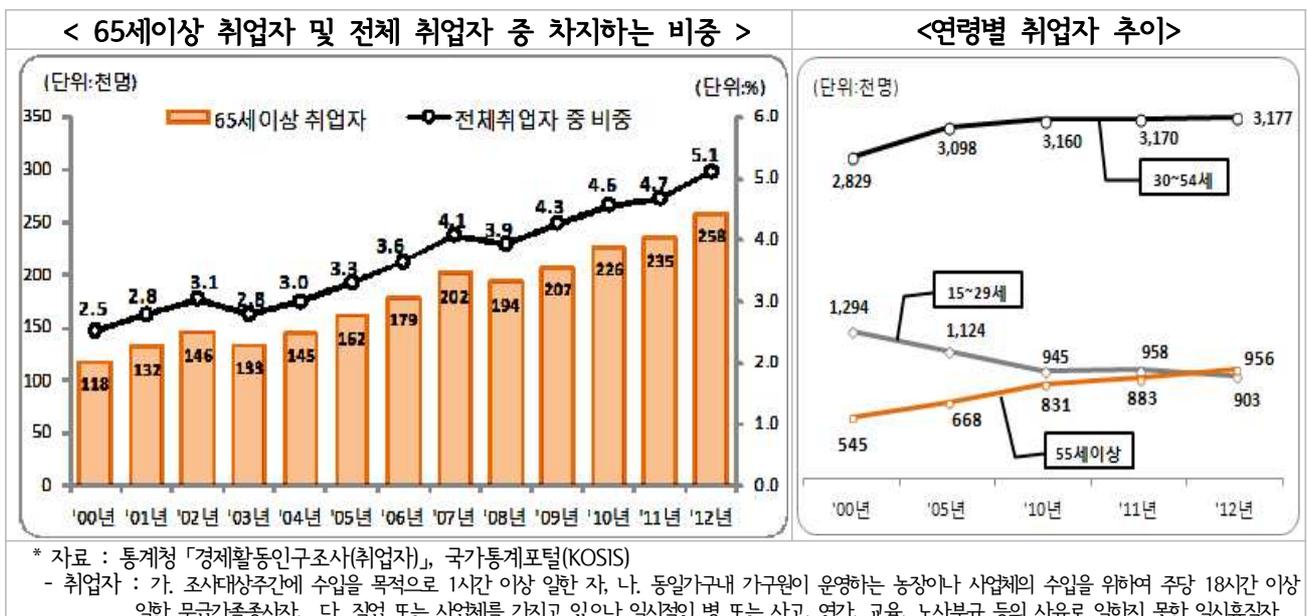
□ 2012년 말 현재 서울 총 출생아 수는 9만4천명으로 1982년 19만8천명 대비 10만4천명 감소하여 절반 수준이하로 줄었으며, 합계출산율은 1982년 2.05명에서 2012년 1.06명으로 감소함.



## 5. 65세이상 취업자

- ▶ 65세이상 취업자 12년 새 2.2배 증가, 2000년 11만8천명→2012년 25만8천명
- ▶ 55세이상 취업자 2012년 처음으로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추월함  
→ 15~29세 취업자 12년새 39만1천명 감소, 55세 이상 취업자 12년새 41만1천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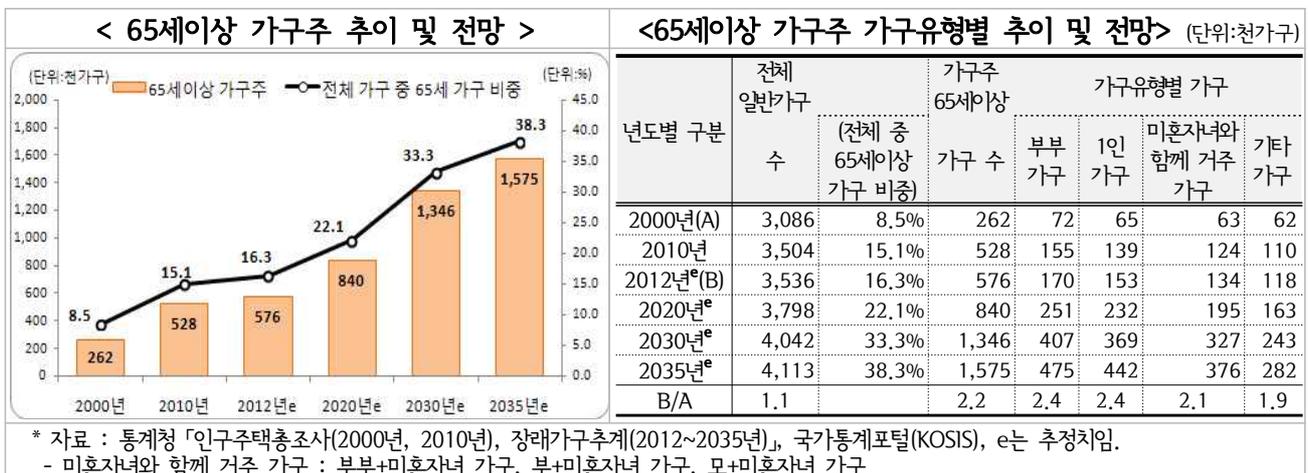
- 65세이상 고령자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최근 12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65세이상 서울 취업자가 2000년 11만8천명에서 2012년 25만8천명으로 12년 새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취업자 중 65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5%에서 2012년 5.1%로 증가하였음.
- 이처럼 취업자 연령이 높아지면서, 2012년 처음으로 55세이상 취업자가 15~29세 청년 취업자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남.
  - 15~29세 취업자는 2000년 129만4천명에서 2012년 90만3천명으로 12년 새 39만1천명(-30.2%) 줄어든 반면, 55세이상 취업자는 2000년 54만5천명에서 2012년 95만6천명으로 41만1천명(75.4%) 증가함.
  - 또한 30~54세 취업자는 '00년 282만9천명에서 '12년 317만7천명으로 12년 새 34만8천명(12.3%) 증가함.



## 6. 고령 가구주

- ▶ 65세이상 가구 12년새 2.2배 ↑(2000년 26만2천가구→2012년<sup>e</sup> 57만6천가구, 2035년<sup>e</sup> 157만5천가구)
  - 전체 가구 중 65세이상 가구 비중 : 2000년 8.5%→2012년<sup>e</sup> 16.3%→2035년<sup>e</sup> 38.3%
  - 2012년 65세이상 가구 중 부부만 살거나 니홀로 사는 가구 비중 56.2%
- ▶ 65세이상 노인부부 가구, 독신가구,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증가 추세(2000년→2012년<sup>e</sup>)
  - 부부가구 지난 12년새 2.4배↑, 1인가구 2.4배↑, 미혼자녀와 함께사는 가구 2.1배↑

-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척되면서 만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65세이상 가구주도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부부만 살거나 니홀로 살아가는 노인이 증가할 뿐 아니라,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주도 증가하는 추세임.
  - 결혼기피와 저출산,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젊은층의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1인가구 증가가 노령층에만 해당되는 현상은 아니나,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어려움이 더 큼.
- 2012년<sup>e</sup> 65세이상 가구 중 자녀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가 29.5%(17만가구), 1인가구 26.7%(15만3천가구), 미혼자녀와 함께사는 가구 23.3%(13만4천가구) 등의 순이어서, 65세이상 가구 중 절반이상인 56.2%는 노부부만 살거나 홀로 살고 있음.
  - 가구주 연령 65세이상 가구는 2000년 26만2천가구에서 2012년<sup>e</sup> 57만6천가구로 12년 2.2배 증가 했으며, 2035년<sup>e</sup>에는 157만5천 가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전체 일반가구 중 65세이상 가구주 비중은 8.5%(00년)→16.3%(12년<sup>e</sup>)로 증가하였으며, 2035년<sup>e</sup>에는 38.3%로 증가할 전망이다.
- 65세이상 가구의 특징은 노인 부부와 독신 가구도 증가할 뿐 아니라, 자녀의 독립지연 등으로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부 가구 12년 새 2.4배 증가(72천가구('00년) → 17만가구('12년<sup>e</sup>)), 2035년<sup>e</sup> 47만5천가구
  - 1인 가구 12년 새 2.4배 증가(65천가구('00년) → 15만3천가구('12년<sup>e</sup>)), 2035년<sup>e</sup> 44만2천가구
  - 미혼자녀와 함께사는 가구 2.1배 증가(63천가구('00년) → 13만4천가구('12년<sup>e</sup>)), 2035년<sup>e</sup> 37만6천가구



**분 석**

**65세이상 가구 중 1인가구와 2인이상 가구의 생활실태 및 견해차**

가구주 연령 65세이상 가구를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와 '2인이상 가구'로 나누어 각 지표별로 생활실태 및 견해 차이를 살펴보았음. -활용된 자료 : 2012년 서울서베이 자료 -

- ▶ 주택유형 : 1인(단독주택 45.6%, 아파트 39.4%), 2인이상(아파트 43.2%, 단독주택 40.6%)
- ▶ 주거점유형태 : 1인(자기집 37.4%, 월세 33.5%), 2인이상(자기집 72.0%)
- ▶ 거주지 선택 시 고려요인 : 1인(경제적 여건 61.7%), 2인이상(경제적 여건 48.8%, 주변여건 21.6%)
- ▶ 생활환경 만족률 : 1인(주거환경 45.5%, 사회환경 33.6%), 2인이상(주거환경 56.6%, 사회환경 42.4%)
- ▶ 가구부채 있음 : 1인(24.8%), 2인 이상(38.2%)
- ▶ 경제환경 : 1인(만족 25.3%, 불만족 35.7%), 2인이상(만족 36.8%, 불만족 16.6%)
- ▶ 주관적 계층의식 : 1인(하층 69.1%, 중층 30.2%), 2인이상(중층 61.6%, 하층 36.2%)

□ 주택유형 및 주거점유형태별 분포

- 65세이상 1인가구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거주가 45.6%, 아파트가 39.4% 순이고, 2인이상 가구는 아파트 43.2%, 단독주택 40.6% 순임.
- 주거 점유형태는 1인 가구는 자기집 37.4%, 월세 33.5%에 살고, 2인이상 가구는 72.0%가 자기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유형별 분포 ＞						＜ 주거점유형태별 분포 ＞					
(단위: %)						(단위: %)					
구 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기타	계	자기집	전세	월세	무상/기타	
15세이상 전체 가구	100.0	38.8	41.0	14.0	6.2	15세이상 전체 가구	100.0	41.2	32.9	24.8	1.1
65세이상 가구	100.0	42.1	42.0	11.1	4.7	65세이상 가구	100.0	61.4	19.7	18.3	0.6
- 1인	100.0	45.6	39.4	11.2	3.8	- 1인	100.0	37.4	28.6	33.5	0.5
- 2인이상	100.0	40.6	43.2	11.1	5.1	- 2인이상	100.0	72.0	15.8	11.6	0.6

\* 자료 : 서울시 「2012 서울서베이」, 원자료 분석

□ 향후 주거형태

- 10년 후에 어떤 주택에서 살고 있을지에 대해 물은 결과, 1인 가구는 9.8%, 2인 이상 가구는 6.6%가 실버타운 등 공동주택에서 살게 될 것 같다고 응답함.

＜ 향후 주거형태 ＞							
(단위: %)							
구 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실버타운 등)	기타
15세이상 전체 가구	100.0	25.8	60.5	8.8	2.5	2.3	0.0
65세이상 가구	100.0	41.5	40.4	10.1	0.4	7.6	0.0
- 1인	100.0	41.0	35.8	12.7	0.7	9.8	-
- 2인이상	100.0	41.7	42.4	8.9	0.3	6.6	0.0

\* 자료 : 서울시 「2012 서울서베이」, 원자료 분석

□ 거주지 선택시 고려요인

-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65세이상 1인가구는 경제적 여건(61.7%)을 가장 높게 꼽았음.
- 반면, 2인이상 가구는 경제적 여건(48.8%)을 높게 꼽았으나, 위치/교통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21.6%나 됨.

구 분	계	경제적 여건	교육 환경	주변여건 (위치/교통 등)	자녀육아 및 양육	주차/방갯수 등	거주 안정성/주변 치안	생활환경 (쇼핑/산책/운동 등)	재테크 수단	해당 지역의 이미지
15세이상 전체 가구	100.0	48.8	7.6	21.5	2.8	3.3	7.0	6.7	1.8	0.5
65세이상 가구	100.0	52.8	2.3	19.3	0.8	3.8	10.1	8.9	0.9	1.2
- 1인	100.0	61.7	1.7	14.0	0.4	4.7	6.5	8.9	0.5	1.5
- 2인이상	100.0	48.8	2.6	21.6	1.0	3.3	11.6	8.8	1.1	1.1

\* 자료 : 서울시 「2012 서울서베이」, 원자료 분석  
 -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순위 응답)

□ 생활환경 만족도

- 전반적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률은 2인이상 가구가 1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만족률은 1인가구가 2인이상 가구보다 높음.
- 주거환경에 대해 1인 가구는 45.5%가 만족, 13.6%가 불만족으로 응답한 반면, 2인 이상은 56.6%가 만족, 7.8%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함.
- 경제환경에 대해 1인 가구는 25.3%가 만족, 35.7%가 불만족으로 응답한 반면, 2인 이상은 36.8%가 만족, 16.6%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함.
- 사회환경에 대해 1인 가구는 33.6%가 만족, 20.8%가 불만족으로 응답한 반면, 2인 이상은 42.4%가 만족, 15.3%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함.

구 분	계	주거환경 (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경제환경 (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사회환경 (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15세이상 전체 가구	100.0	54.2	37.2	8.6	34.7	47.4	17.9	42.1	42.9	15.0
65세이상 가구	100.0	53.2	37.2	9.6	33.3	44.2	22.5	39.7	43.3	17.0
- 1인	100.0	45.5	40.8	13.6	25.3	39.0	35.7	33.6	45.5	20.8
- 2인이상	100.0	56.6	35.6	7.8	36.8	46.5	16.6	42.4	42.3	15.3

\* 자료 : 서울시 「2012 서울서베이」, 원자료 분석  
 - 귀하의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정도(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만족 : 매우만족+약간 만족, 불만족 : 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

□ 가구 부채

- 1인가구는 75.2%가 부채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주택임차 및 구입(9.1%), 의료비(8.7%) 등의 원인으로 24.8%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함.
- 2인이상 가구는 61.8%가 가구 부채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1인가구와 마찬가지로 주택임차 및 구입(17.8%), 의료비(11.0%) 등의 원인으로 38.2%는 부채가 있음.

구 분	계	주택 임차 및 구입	교육비 (자녀 교육비, 사교육비 등)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를 제한한 기타생활비	재테크 투자 (주식, 부동산 등)	기타	없다
15세이상 전체 가구	100.0	30.8	7.4	2.9	4.5	5.0	0.3	49.1
65세이상 가구	100.0	15.1	1.0	10.3	4.4	3.0	0.3	65.9
- 1인	100.0	9.1	0.2	8.7	4.5	2.0	0.3	75.2
- 2인이상	100.0	17.8	1.4	11.0	4.3	3.5	0.3	61.8

\* 자료 : 서울시 「2012 서울서베이」, 원자료 분석

□ 소득수준

- 1인가구는 가구 소득수준에 대해 72.4%가 우리나라 가구소득 대비하여 중간(5)이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2인이상 가구는 42.0%가 중간이 안된다고 응답, 30.0%는 중간은 넘는다고 응답함.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는 48.7%가 100만원 미만, 36.7%는 100~200만원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2인이상가구는 100~200만원미만 27.1%, 200~300만원 미만 23.6%, 300~400만원 미만 16.4% 순으로 응답함.

구 분	계	4 이하	5 중간	6 이상
15세이상 전체 가구	100.0	34.0	26.6	39.4
65세이상 가구	100.0	51.3	23.5	25.1
- 1인	100.0	72.4	13.4	14.2
- 2인이상	100.0	42.0	28.0	30.0

\* 자료 : 서울시 「2012 서울서베이」, 원자료 분석  
 - 질문 :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1(저소득)~10(고소득)까지로 구분(5는 중간)한다면 귀댁의 소득은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1년동안(2011.10.1~2012.9.30.) 세금납부(공제)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 모두 포함)

□ 계층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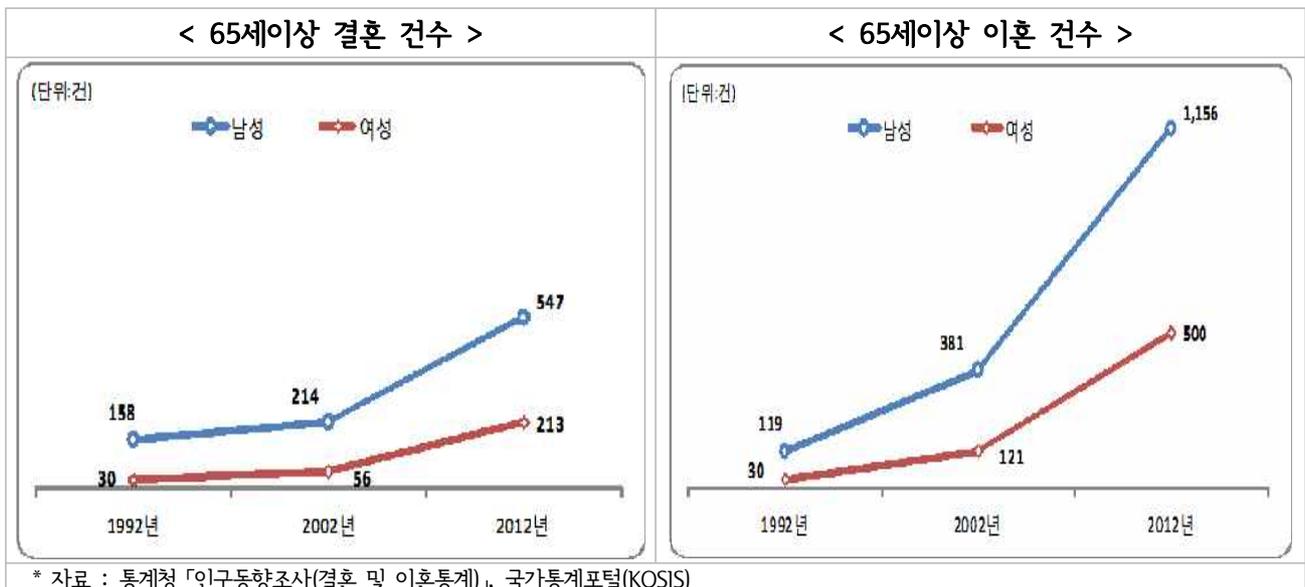
- 주관적 계층의식(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에 대해 1인가구는 69.1%가 하층이라고 응답한 반면, 2인이상 가구는 61.6%가 자신은 중층은 된다고 여김.



## 7. 황혼 결혼 및 이혼

- ▶ 65세이상 결혼 증가, 남성은 20년새 3.5배 ↑, 여성은 7.1배 ↑  
→ 65세이상 혼인(1992년→2012년) : 남성 158건→ 547건, 여성 30건→ 213건
- ▶ 65세이상 이혼 증가, 남성은 20년새 9.7배 ↑, 여성은 16.7배 ↑  
→ 65세이상 이혼(1992년→2012년) : 남성 119건→ 1,156건, 여성 30건 → 50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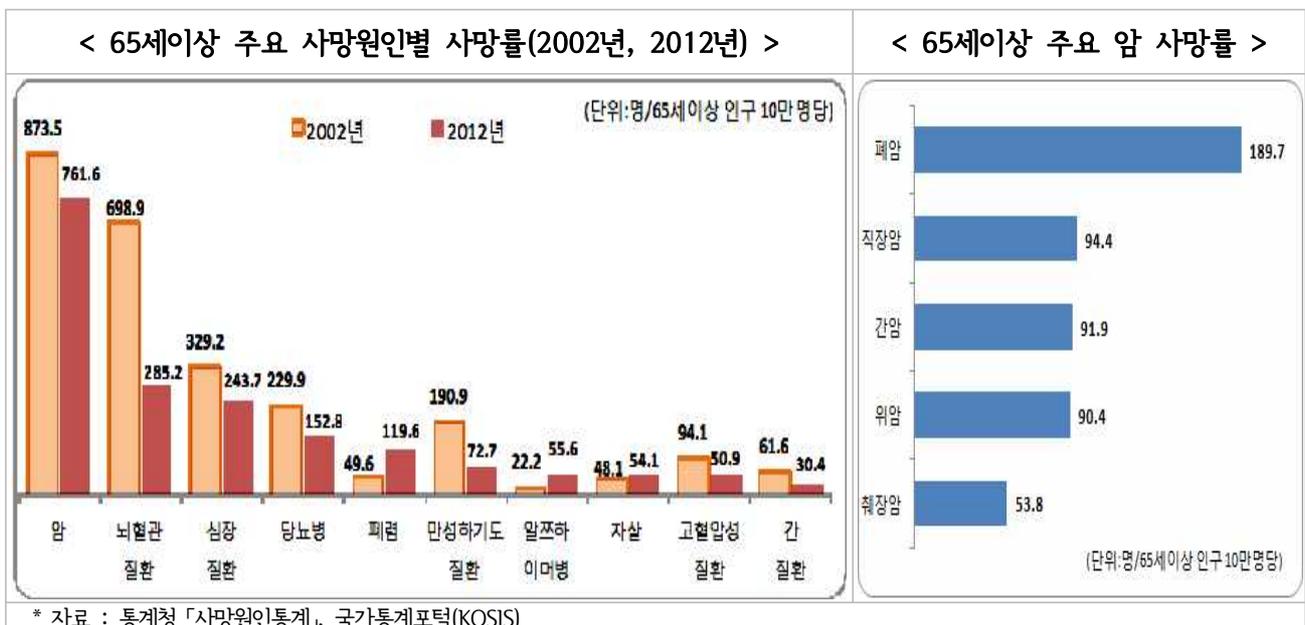
- 65세이상 결혼 및 이혼이 증가하고 있음.
- 65세이상 남성의 결혼은 1992년 158건에서 2012년 547건으로 20년 새 3.5배 증가, 65세이상 여성 결혼은 같은기간 30건에서 213건으로 7.1배 증가함.
  - 전체 혼인 건수는 남성은 1992년 10만7,821건에서 7만1,695건으로 20년 새 33.5% 감소,
  - 여성 혼인건수는 1992년 9만9080건에서 2012년 7만1839건으로 20년 새 27.5% 감소함.
- 65세이상 남성 이혼은 1992년 119건에서 2012년 1,156건으로 20년 새 9.7배 증가, 65세이상 여성은 같은기간 30건에서 500건으로 20년 새 16.7배나 증가함.
  - 전체 이혼 건수는 남성은 1992년 1만3461건에서 2만177건으로 20년 새 4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1992년 1만4,247건에서 2012년 2만310건으로 20년 새 42.6% 증가함.



## 8. 사망원인

- ▶ 2012년 65세 이상 사망원인 1위는 암(암사망률 65세이상 인구 10만명당 761.6명)  
 → 이어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폐렴, 만성하기도질환, 알츠하이머병, 자살 순  
 → 암 사망률 중에서는 폐암, 직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순으로 높음.
- ▶ 2002년 대비 폐렴, 알츠하이머병, 자살 사망률은 증가하였음.

- 65세이상 고령자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2012년 65세이상 인구 10만명당 761.6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음.
  - 뒤이어 뇌혈관 질환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은 285.2명, 심장질환 사망률 243.7명, 당뇨병 152.8명, 폐렴 119.6명, 만성하기도 질환 72.7명, 알츠하이머병 55.6%, 자살 사망률 54.1명, 고혈압성 질환 50.9명, 간질환 30.4명 순으로 나타남.
- 65세이상 사망원인 10대 사망률 중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간질환 사망률은 2002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폐렴(49.6명→119.6명), 알츠하이머병(22.2명→55.6명), 자살 사망률(48.1명→54.1명)은 10년 전 대비 증가함.
- 65세이상 암 사망률 중 폐암 사망률이 189.7명으로 가장 높고, 직장암(94.4명), 간암(91.9명), 위암(90.4명), 췌장암(53.8명) 순임.



## 9. 노인 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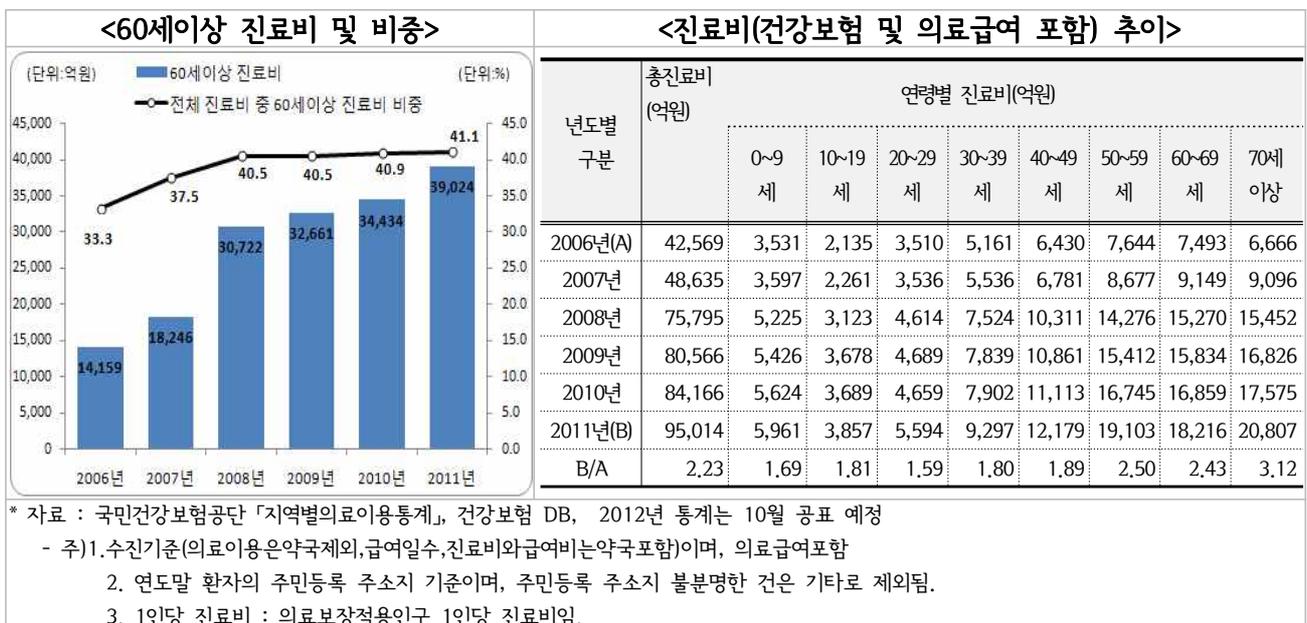
- ▶ 70세이상 노인진료비 : 2006년 6,666억원 → 2011년 2조807억원으로 3.12배 증가
- ▶ 60~69세 진료비 : 2006년 7,493억원 → 2011년 1조8,216억원으로 2.43배 증가
- ▶ 전체 진료비 중 60세이상 진료비 점유율 : 2006년 33.3% → 2011년 41.1%
- 고령화 및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차이 등으로 노인진료비 지출 상승, 사회적부담 가중

□ 70세이상 진료비가 지난 5년 새 3배 이상 증가, 60대 진료비는 2.4배 증가하는 등 노인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진료비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노인 의료비용의 급증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 고가의 의료서비스 이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모든 연령층에서 진료비가 증가하였으나, 특히 50대 이후에서 2배이상의 증가를 나타냈고, 이중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진료비 증가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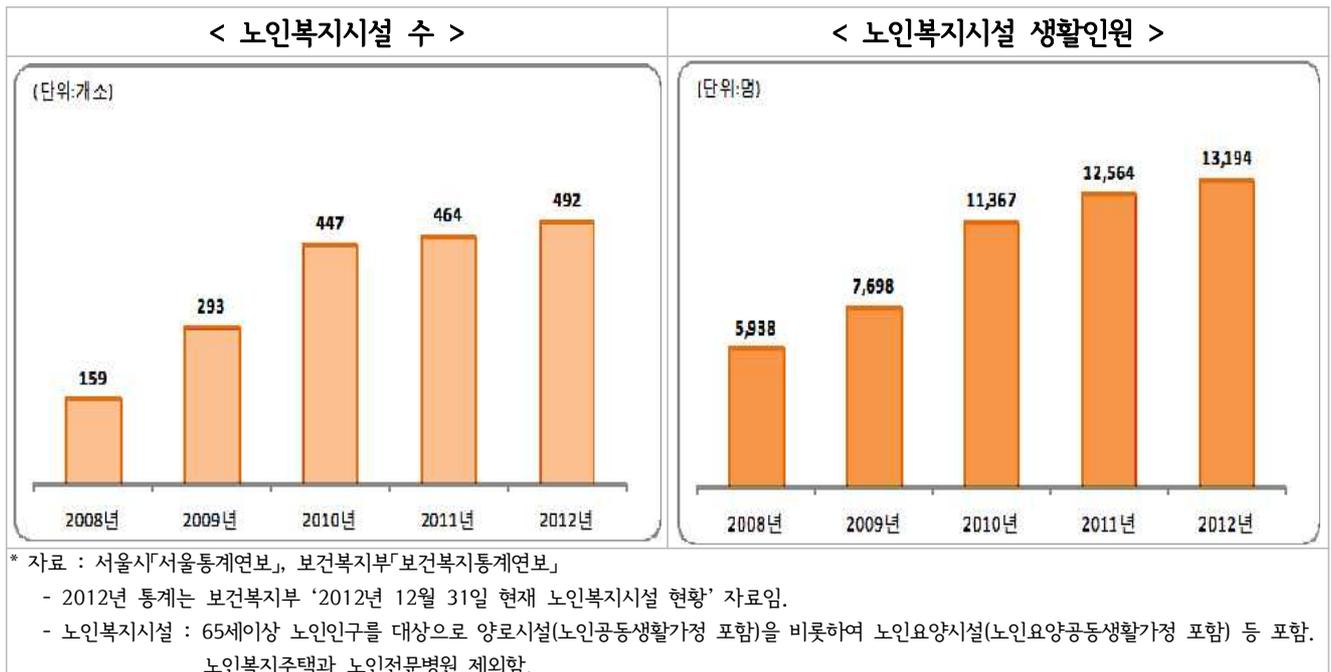
- 70세이상 노인 진료비는 2006년에 6,666억원에서 2011년에 2조807억원으로 3.12배 급증하였고, 60~69세는 2006년 7,493억원에서 2011년 1조8,216억원으로 2.43배 증가함.
- 전체 진료비중 60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3.3%에서 2011년 41.1%로 5년 새 7.8%p 증가하였음.
- 전체 진료비는 2006년 4조2,569억원에서 2011년 9조5,014억원으로 5년 새 2.23배 증가함.



## 10. 노인복지 생활시설 현황

- ▶ 노인복지 생활시설 4년새 3.1배 ↑ : 2008년 159개소 → 2012년 492개소  
→ 이중, 노인의료 복지시설(치매, 중풍 등 질환) 3.6배 증가
- ▶ 노인복지 생활시설 생활인원 4년 새 2.2배 ↑ : 2008년 5,938명 → 2012년 13,194명  
→ 이중, 노인의료 복지시설생활인원은 2.3배 증가

-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노인복지 생활시설(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 시설) 수는 2008년 159개에서 2012년 492개로 4년 새 3.1배 증가함.
  - 이중 치매, 중풍 등의 질환에 대한 보살핌이 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2년 473개로 2008년(133개) 대비 3.6배 증가함.
- 또한, 노인복지 생활시설 생활인원은 2008년 5,938명에서 2012년 1만3,194명으로 4년 새 2.2배 증가하였음.
  - 이중, 노인의료 복지시설 생활인원은 2008년 5,215명에서 2012년 1만1,993명으로 2.3배 증가함.



## 11. 노인복지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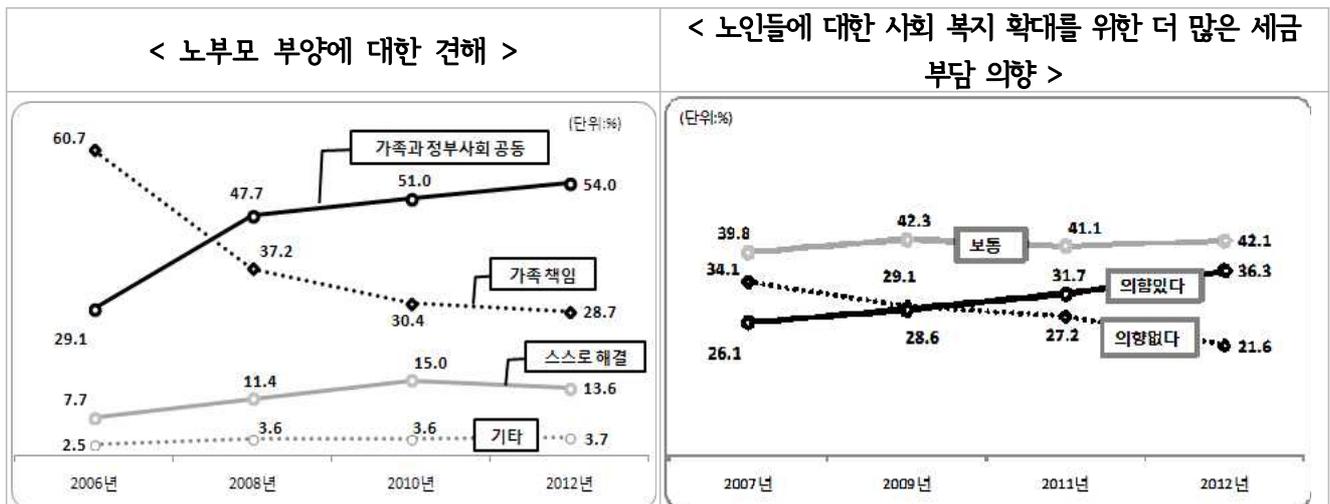
- ▶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가 가족전적책임에서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책임으로 변화
  -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견해 : 2006년 29.1% → 2012년 54.0%
  - 가족 전적 책임이다 : 2006년 60.7% → 2012년 28.7%
- ▶ 노인들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 26.1%(07년)→36.3%(12년)

□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가 가족전적책임에서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 책임이라는 견해로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

- 2012년 15세이상 서울시민들은 부모님의 노후생계에 대하여 '가족이 전담해야 한다'는 견해는 '06년 60.7% → '08년 37.2% → '12년에는 28.7%로 감소한 반면,
-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견해는 '06년 29.1% → '08년 47.7% → '12년 54.0%로 증가하여 2008년부터 가족 책임이라는 견해보다 높아지기 시작함.
- 또한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06년 7.7%에서 '12년 13.6%로 증가함.

□ 부모 노후생계에 대한 부양 견해 변화와 함께 서울시민들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더 많은 세금 부담의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음.

- 2012년 15세이상 서울시민들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의향이 있다'는 응답율은 2007년 26.1%에서 2012년 36.3%로 여전히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의향 없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4.1%에서 21.6%로 줄어들고 있음.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각년도」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부모님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인사회복지에 대한 질문 :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 12. 고민 및 받고싶은 복지서비스(60세이상)

- ▶ 60세이상 고민거리 1위는 건강(44.2%), 노후생활(19.8%), 경제문제(18.0%) 순  
 → 가족 중 고민상담 대상 : 배우자 54.8%, 자녀 25.2%, 가족과 의논 안함 14.5%
- ▶ 가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건강검진(34.1%)>간병(24.0%)>가사서비스(14.2%) 순  
 → 60세이상 97.3% 복지 서비스 받고 싶어함.

- 2011년 60세이상 연령층의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고민으로는 건강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고, 노후생활(19.8%), 경제문제(18.0%), 가족문제(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이들은 고민이 있을 때, 가족 중 배우자와 고민상담한다는 응답이 54.8%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와 상담은 25.2%이고, 가족과 의논안한다는 응답도 14.5%로 나타났고, 기타가족과 상담은 5.5%임.
- 이를 반영하듯,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60세이상 서울시민들이 가장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로 건강검진을 1위로 꼽았음.
- 2011년 60세이상 서울시민 중 97.3%가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로는 건강검진(34.1%)이 가장 많고, 간병서비스(24.0%), 가사서비스(14.2%), 취업알선(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5년과 비교하면 건강검진 복지서비스 선호율은 46.8%→34.1%로 줄어든 반면, 실생활에 도움되는 간병서비스(13.8%→24.0%), 가사서비스(6.1%→14.2%)는 증가함.

< 2011년 60세이상 서울시민의 주요 고민거리 > <span style="float: right;">(단위:%)</span>		< 2011년 받고싶은 복지서비스 > <span style="float: right;">(단위:%)</span>					
		60세이상 복지 서비스 받고싶다	받고싶은 복지서비스				
			건강 검진	간병 서비스	가사 서비스	취업 알선	기타
건강 문제	44.2	76.9	46.8	13.8	6.1	14.4	18.9
노후 생활	19.8	80.7	43.3	18.4	7.9	12.6	17.8
경제 관련 문제	18.0	84.7	36.2	17.7	10.3	16.1	19.7
가족간 문제	8.8	97.3	34.1	24.0	14.2	12.3	15.4
가족의 결혼	2.1						
기타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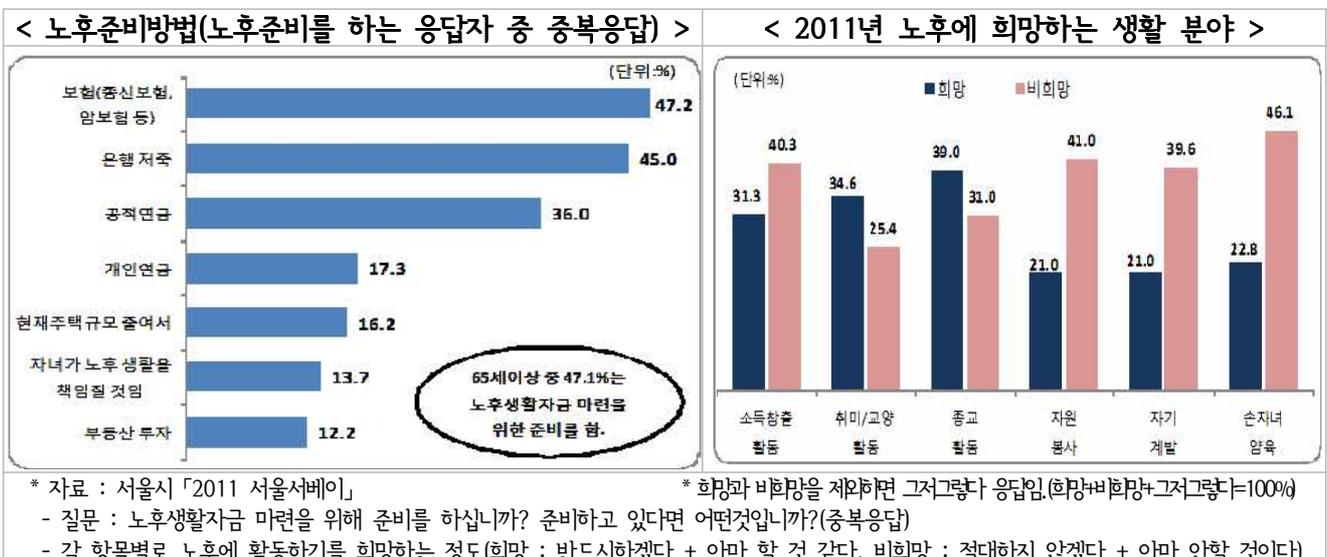
\* 자료 : 서울시 「2011 서울서베이」  
 - 귀하의 개인적인 고민거리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1순위 응답)  
 - 받고싶은 복지서비스 질문 :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습니까?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13. 노후 생활(65세이상)

- ▶ 65세이상 노후준비율 증가 : 2007년 35.0% → 2011년 47.1%
  - 노후준비방법 : 보험(47.2%), 은행저축(45.0%), 공적연금(36.0%) 등의 순
- ▶ 노후 희망하는 동거 형태 : 자녀들과 가까운 독립된 공간 49.3%, 노인전용공간 27.3%
- ▶ 노후생활 : 종교활동 희망률이 가장 높고, 손자녀 양육은 비희망률이 가장 높음

- 기대수명의 증가로 길어진 노후생활, 노년기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소득의 감소, 건강 문제, 가족구성의 변화, 부양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노후 준비의 필요성 더욱 증가
-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65세이상 중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7년 35.0%, 2009년 44.6%, 2011년 47.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노후 준비방법(중복응답)으로는 종신보험이나 암보험등 보험(47.2%), 은행저축(45.0%)이 가장 높았으며, 공적연금(36.0%), 개인연금(17.3%), 현재 주택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16.2%), 자녀가 노후를 책임질 것이다(13.7%), 부동산투자(12.2%) 등의 순임.
- 2011년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65세이상 노인 중 49.3%는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독립된 공간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27.3%는 노인전용 공간, 20.9%는 자녀와 함께, 2.5%는 기타 순임.
- 서울의 65세이상 노인이 가장 희망하는 노후 활동은 종교활동, 가장 원하지 않는 노후는 손자녀양육인 것으로 나타남.
  - 노후생활 중 종교활동, 취미/교양활동, 소득창출 활동은 상대적으로 희망율이 높았음.
  - 반면, 손자녀 양육, 자원봉사, 자기계발은 희망율보다 비희망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14.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65세이상)

- ▶ 65세이상 중 72.1%는 지난1년동안 참여한 모임이 하나이상은 된다고 응답
  - 모임유형은 친목회/친목계(72.7%)가 가장 많음
- ▶ 65세이상이 주말이나 휴일 실제 주로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57.3%)이 가장 높음
  - 반면,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나들이)이 28.3%로 가장 높음.

□ 2012년 65세이상 노인 중 72.1%는 지난 1년동안 참여한 모임(직장)이 하나 이상은 된다고 응답함.

- 65세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은 지난1년동안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도 나간 적이 전혀 없음.
- 참여한 모임이 있다고 응답한 65세이상 중(중복응답), 모임 유형은 친목회/친목계 (72.7%)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동창회/동창모임(34.8%), 종교단체(31.7%), 향우회/종친회(25.7%) 등의 순으로 높음.

※ 중복응답은 참여하는 모든 모임 유형을 복수로 선택하여 각 모임별로 응답율을 계산함. 각 응답을 합이 100%가 넘음.

□ 65세이상 서울시민들의 여가활동은 실내에서 TV시청에 편중되어 있지만, 향후 여가생활로는 여행을 가장 희망하고 있어, 희망 여가활동과 실제 여가활동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통계에 따르면, 만 65세이상 서울시민들은 주말 및 휴일의 주 여가활동(1순위)으로 TV/DVD 시청한다가 57.3%로 1위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휴식 12.7%, 종교활동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희망하는 여가활동에서는 여행이 28.3%로 가장 높았음. 여행 다음으로는 TV시청 26.8%, 종교활동 11.7%, 휴식 10.1% 등의 순으로 희망율이 높게 나타났음.

